



‘조선일보 때리기’ 실태

인터넷매체 바람잡고, 방송은 부풀리고 ‘짜짜궁’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저질 짜리사이다.” “조선일보는 미친 개다.”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에 퍼붓는 말입니다. 거리의 싸움판에서나 들을 법한 ‘막말’에 가깝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매체가 조선일보에 퍼붓는 폭언을 들으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 언론이 똑같이 쓴 기사라도 조선일보 기사는 무조건 왜곡됐고 편향적이며 음모가 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들 인터넷 매체와 방송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한 곳에서 조선일보 비판이 시작되면 여기저기 다른 사이트로 옮겨져 돌아다니다 1~2주일쯤 후에 KBS나 MBC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조선일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증폭시켜 ‘조선일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패턴입니다.



한 젊은이가 안티조선 집회 도중 계란을 던지며 조선일보 본사 입구에 설치된 게시판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있다. 조선일보DB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조선과 인터뷰했다” 공격 명계남씨 “조선일보 지면에서 다시 뵙지 않길 바랍니다” KBS·MBC는 미디어프로 통해 ‘안티 조선’ 확대 재생산

◆“조선일보는 무조건 잘못”

미디어 오늘은 지난달 14일 ‘추미에 망가진 것은 조선일보 때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조선일보가 추미에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총선날 아침 신문에 추미에 의원이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사진이 나와 추 의원이 낙선했다”는 명계남 전 노사모 회장의 황당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명씨가 “소년 조선일보를 읽는 아이들이 상대하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한 내용까지 실었던군요.

4.15총선 전인 3월 31일 오마이뉴스는 12곳 선거구에서 조선일보와 KBS·MBC의 여론조사가 차이나는다고 보도하면서 “(조선일보 조사가) 방송사 조사에 비해 ‘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언적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사 조사는 무조건 옳은 반면, 조선일보는 의도를 갖고 여론 조사를 왜곡했다는 누앙스였지요. 그러나 선거 결과는 조선일보의

조사가 압도적으로 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전 말은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4/200404260259.html/news/200404/200404260259.html 참조). 이런 결과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짐작했습니다. ‘조선일보=왜곡, 방송=진실’이라야 할 그들의 선명체제로선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과 인터뷰 하지 마라”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인터넷 매체 ‘브레이크뉴스’의 시민기자 김오달씨의 분투기(奮鬥記)를 게재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취재 현장을 누비는 김씨의 휴먼 스토리였으나, ‘브레이크뉴스’는 김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금지한 자사의 방침을 어겼으며 정직(停職)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니다. 친여(親與) 매체인 ‘서프라이즈’에는 지난 달 19일 조선일보와 인터

뷰한 예술의 전당 김용배 신임 사장에게 명계남씨가 쓴 편지가 실렸습니니다. 명씨는 “저질 짜리사이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란 글에서 “조선일보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정보, 특별한 만남은 허락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선일보 경제부의 간담회 내용이 지면에 실리자, 명씨는 이번엔 해수부 홈페이지와 서프라이즈에 “공통의 보도자료를 브리핑 받는 것 이외에 조선일보 지면에서 장관님을 뵙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취재 방해가 이뤄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 전엔 조선일보 노조 조합원 앞에서 강연을 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인터넷 매체들이 별 때처럼 들고 일어나 노 의원이 한동안 곤경에 처했지요. 이들은 조선보

보(조선일보 노조 신문)가 노 의원 발언을 왜곡했다고 ‘습관’처럼 떠들었는데, 정말 왜곡했는지 독자 여러분이 당시 강연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mms://dchosun.hv.od.nefficient.co.kr/dchosun/040511\_noh\_hwoi\_chan\_no-jo\_spe-200k.wmv).

◆방송의 조선일보 때리기

KBS의 ‘미디어 포커스’는 5월 22일 “신문들이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신문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KBS 뉴스9(5월 10일)가 경제위기 우려감을 보도했다는 사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KBS1라디오(5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91%의 응답자가 경제상황을 ‘위기’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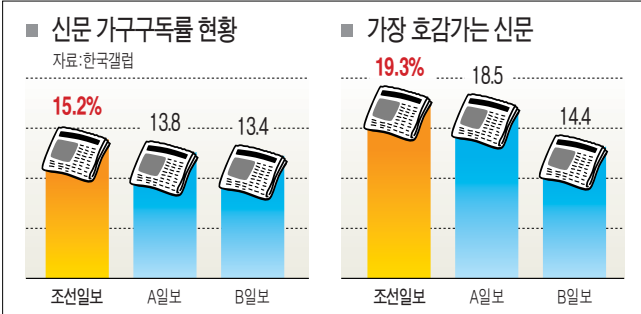
지난 4월 MBC의 ‘신강균의 사실은’은 정동원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유세 사진을 놓고 ‘조선일보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대부분 신문, 심지어 자신들의 MBC 뉴스에도 나온 것이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2880’은 4.15 총선 전후 3차례 연속으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미디어 비평이 본래 목적이 아닌 이 프로그램이 3회 연속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선 것 자체가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팩트(사실)들도 오류 투성이어서 같은 기자로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KBS 2TV ‘시사투나잇’ 역시 5월 초 나흘 연속 조선일보 비판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시사투나잇’은 반(反) 조선일보인사 10명의 인터뷰를 2차례 내보내면서,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발언은 익명의 시민 인터뷰 한 번 뿐이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정말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부 과격 세력이 ‘조선일보 폐간’ 운운하는 섬뜩한 세상이지만, 저희들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 덕에 힘을 내곤 합니다.

신동훈 미디어팀기자 dhshin@chosun.com



‘1등 전선’ 이상없다

본지, 유료구독률·호감도 1위 고수

한국갤럽 여론조사

‘1등 신문’ 조선일보의 위상은 확고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전화조사에서 가구 유료 구독률, 즉 ‘집에서 구독료를 내고 보고 있는 신문’을 묻는 질문에 조선일보가 15.2%로 가장 높았습니다.

A 신문(13.8%)과 B 신문(13.4%)은 2위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A신문과 B신문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구독률 1%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C신문 3.2%, D신문 2.1%, E신문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일간신문을 하나라도 구독하는 가구는 절반을 약간 넘는 52.5%였습니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보면, 30대(47.8%)에서는 신문 구독자가 절반에 약간 못 미치지만, 40대(55.2%)와 50대 이상(53.9%)에서는 과반수에 달했

습니다. 현재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은 10년 전인 94년 갤럽조사의 54.1%에 비해 약간 줄었습니다만, 조선일보의 가구 구독률은 10년 전 15.4%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22일에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56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는 일간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신문’으로 조선일보(19.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서 A신문(18.5%), B신문(14.4%), C신문(12.3%) 순이었습니다. ‘사실이나 칼럼의 논조가 가장 좋은 신문’으로도 조선일보(15.9%)는 선두였으며, 그 다음으로 A신문(14.9%), B신문(10.2%), C신문(9.9%) 등이 꼽혔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갤럽 조사를 비롯해 네티즌미디어리서치 등 조사전문 기관들이 전국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구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는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총원팀기자 ylhong@chosun.com

“채 기자 바보예요? 조선일보랑 말안한다니깐...”

채성진기자 ‘시민단체의 메카’ 종로 취재현장

“우린 안티 조선” 정당한 취재활동까지 막아 막대한 적개심 거두고 페어플레이 할순 없다

사회부 기동팀에서 종로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채성진 기자입니다. 종로·성북·종암경찰서 관내의 각종 사건·사고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쫓기는 것이 제 몫입니다.

종로경찰서 맞은 편 철학카페 ‘느티나무’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장소로 애용하는 곳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도 다양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 의견과 주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종로서 출입기자들은 많을 때는 거의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느티나무 카페를 찾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적지 않은 단체들이 ‘안티조선’을 선언했거나 잠재적인 ‘안티조선’임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일보 기자는 ‘공공의 적’인 셈이지요. 그래서 명함 교환을 거부당하는 봉분도 자주 당합니다. 지난달 말 어느 환경단체의 기자

회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견이 끝난 뒤 추가질문을 하려고 실무 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명함집을 꺼내들었죠. 먼저 명함을 주더군요.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 제 명함을 건네는 순간 “아, 조선일보세요?” 합니다. 실망이 역력한 표정.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명함을 뺏아 갔습니다. “저희 조선일보와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싸늘히 돌아서는 그 모습. 참 민망했습니다. 주변의 타사 기자들은 애써 외면하는 눈치였고요.

“왜 오셨어요? 저희 기사 쓰지 마세요. 조선에 기사 나가면 폭팔러요.”

“기자분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말씀 참 못 알아들으시네요. 기자님 바보세요? 저희는 조선일보랑은 말 안한다니까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모 단체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젊은 양반이 하고 많은 신문사 중에 왜 조선일보에 들어갔노.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나올 생각 없나”하며 축찬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난감했습니다.

‘안티조선’을 표방하는 네티즌과 단체들은 “탄핵은 끝났다. 이제 목표는 조선일보 폐간이다”라고 외치며 ‘조선일보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취재 환경도 그만큼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팩트로 승부하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나고,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때까지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안티조선 그룹도 지금은 ‘편견의 장막’ 속에서 귀를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안티조선 그룹은 조선일보를 적대시하다 못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자세입니다. 1만명의 취재현장에서 그들의 ‘적개심’은 온 몸으로 느끼는 저는,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는 시대가 언제쯤 올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타도의 대상’인 조선일보 기자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dudmie@chosun.com



채성진 기자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언어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5월 입사했다. 편집부와 스포츠레저부를 거쳐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세상사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겠다는 ‘더듬이’란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백범 암살범 추적 권중희씨 부인의 편지... “조선일보 독자님께 감사”



김명자씨

지난 4월 말, 저는 백범 암살범 안두희 추적자로 유명한 권중희(68)씨 부인 김명자(65)씨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외골수로 백범 암살 진상규명 작업에 매진해 온 권씨가 ‘생황고 때문에 가족 우리에서 생활했다’며 편지지 3장에 정성스럽게 쓴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는 본사에 편지를 쓰기 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몇몇 방송사와 신문에 보냈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보낸 호소의 편지에 대해 어느 언론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올해 1월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조선일보에 편지를 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권씨가 안두희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7년 초. 그 이후 17년의 세월은 권씨를 대신해 2남1녀의 교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씨에게 돌아보기 끔찍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일산에 오기 전 권씨 부부는 경기도 송추의 한 외양간에서 6년 가까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민주인사로 대우한다는 말만 할 뿐 단칸방도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정부에 야속한 마음도 든다”며 “높고 병든 몸을 누일 수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자 본지에 김씨의 인터뷰가 소개된 뒤, 권씨 부부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1만원을 권씨 계좌로 송금한 학생도 있었고, 기사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조선일보에도 권씨에게 보내달라며 3만원을 부쳐온 주부도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도 권씨 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기도 포천에 신축 중인 임대아파트 분양을 제외했습니다. 각계의 온정에 대해 권씨는 “조선일보 독자들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힘이 권씨 부부를 구해 주었습니다. 최현욱·사회부기자 search@chosun.com